

	동남아 선교 뉴스레터	
	통권 제118권 2026년 제2호(2026.5.31)	발행처: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주소: 부산시 금정구 식물원로 64, 102동 903호	
	발행인 및 편집인: 조흥국 교수	
http://www.seamission.net seathai@hanmail.net 010-3742-6302		
협력기관: 한아봉사회 (전화02-764-2068, www.hanah.or.kr, ksmsa@chol.com)		

Newsletter of Southeast Asian Mission 118 2026 no.2

▶ 제118권 목차 ◀

1. 중국적 정체성과 말레이 문화 사이에 있는 클란탄 주 화인(華人)
2. 태국 카렌침례교회의 선교와 총회회관 설립
3. 동남아시아의 최근 상황
4. 동남아시아 및 선교에 관한 도서 소개
5. 2025년 결산 보고

중국적 정체성과 말레이 문화 사이에 있는 클란탄 주 화인(華人)

이 글은 The Straits Times 2016년 1월 31일 인터넷판에 실린 "Where Muslims pray in Beijing Mosque and a Chinese community finds its way. Halal kopitiam stand alongside 'special restaurants' selling alcohol." (무슬림이 '베이징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중국계 공동체가 그들만의 길을 찾아가다. 할랄 카페가 술을 파는 '특별 식당' 옆에 나란히 서 있다)를 번역·정리한 것이다.

사람들은 말레이 문법에 호키엔어(福建語)를 섞어 말한다. 수세기에 걸친 공유된 문화와 일상은 35년 간의 PAS¹ 통치 아래에서도 중국계 소수 집단을 클란탄(Kelantan) 사회의 일부로 만들었다. 더욱 엄격해지는 이슬람 규제 속에서도 그들의 소속감은 지속돼 왔다.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을까?

말레이시아 클란탄 주에서 열리는 중국식 결혼식 연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예전보다 조금 덜 흥

¹ PAS - Parti Islam Se-Malaysia(말레이시아 이슬람당)의 약칭.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으로 현재 원내 제4당이다. 1951년 창당된 PAS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부터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야당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클란탄 주를 지역적 기반으로 두고 있다.

겨워졌다. 맥주나 샴페인 대신 이제는 콜라나 중국 차가 주로 선택되는 음료가 됐다.

주도(州都) 코타바루(Kota Bharu)에 사는 중국계 호텔 임원 수전(Susan)은 2024년에 끝난만 주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지적했다. 이 정책은 중국인이 소유한 카페, 제과점, 식당이 무슬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할랄 인증을 받도록 강제한다. 설령 업주가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고객들이 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술을 직접 가져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엄격한 할랄 규정 때문에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수전은 주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성(姓)은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2025년 12월 현지를 방문한 *The Straits Times*와의 인터뷰에서 “호텔들은 주정부와 정부 기관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무슬림 공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모습은 클란탄이 보여주는 종교 간 공존의 상징들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근처, 코타바루에

서 4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는 술탄 이스마일 페트라 모스크(Sultan Ismail Petra Mosque)다.



술탄 이스마일 페트라 모스크

논밭과 말레이 마을의 단조로운 풍경을 깨는 이 모스크의 건축 양식은 분명히 중국풍이다. 녹색 유약 기와들이 휘어 올라간 처마 형태로 배열돼 있고, 붉은색이 강조된 들보는 중국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가 되면 스피커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코피아(kopiah 두개골 모자)와 사롱을 착용한 수많은 말레이 남성들이 이곳에 모여든다.

이 모스크는 지역 주민들에게 “베이징 모스크”로 알려져 있다. 2005년 당시 술탄의 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주정부가 건설했으며, 이슬람은 모든 인종을 위한 종교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고(故) 클란탄 주 총리 니크 압둘 아지즈 니크 مات(Nik Abdul Aziz Nik Mat)이 그 설계를 제안했다.

수전이 묘사한 건조해진 결혼식 연회와 베이징 모스크 사이의 간극은 클란탄의 핵심적인 역설을 보여준다. 이슬람 주의 통치 아래에서 수 세대에 걸쳐 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중국계 소수 집단이 이제는 규제의 확장과 경제적 이탈이라는 두 가지 현실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43석을 차지하며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고 연방 차원의 정

치적 야망을 가진 PAS 치하에서, 클란탄은 정치적 이슬람이 실제로 소수 집단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리고 번영이 뒤따르지 않을 때 문화적 관용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장기적 모델을 제공한다.



클란탄의 작은 중국계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지역의 차이나타운으로 알려진 청호 광장(鄭和 Cheng Ho Square)에 있는 식당들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주정부는 이슬람 정책이 무슬림 다수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클란탄의 중국인 공간에 대한 침범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역사학자 에딘쿠(Eddin Khoo)는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4~5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2018년 총선을 앞두고 PAS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에서 보다 민족주의적인 노선으로 이동했고, 이슬람 국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더 강하게 보였다.

“그것이 중국인들이 이 주에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에딘쿠는 말했다.

클란탄의 중국인 마을들은 클란탄 강 근처에 위치해 있다.

말레이족은 클란탄 주민의 96% 이상을 차지한다.

말레이족 96.6%

중국계 2.5%

인도계 0.3%

기타 0.6%

(Sour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of Malaysia 2020)

정치보다 깊은 뿌리

말레이시아 반도 동북쪽 끝에 바다를 끼고 자리 잡은 클란탄은 흔히 말레이 문화권의 핵심으로 묘사된다. 그 문화는 말레이시아의 1,800만 말레이인들 사이에서도 독특하며, 이곳의 방언은 다른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완전히 낯설게 들릴 수 있다.

이곳에는 약 4만 5,000 명의 중국계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는 180만 명의 주 인구 가운데 단 2.5 퍼센트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중국계의 말레이시아 인구 비율은 22.4퍼센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은 19세기와 20세기 초 무역과 주석 광산 붐 때문에 대규모로 이주해 온 조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클란탄의 중국인 공동체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상인과 벼 재배 농민으로서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

클란탄에 중국인이 정착했다는 가장 이른 기록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나라의 해상 기록인 '해항지'에 따르면, 푸젠(福建) 출신 이주민들은 항구 지역에 정착해 무역과 흑후추 재배에 종사했고, 하카(客家)계 이주민들은 금을 찾기 위해 산악 지역으로 끌려갔다.

사실 "클란탄"이라는 이름은 이미 15세기 초 중국 기록에 등장하며, 1429년 무렵에는 교류의 증거가 남아 있다. 이는 중국의 유명한 제독 정화(鄭和 1371~1435)가 말레이 반도를 향해 항해하던 시기와 비슷한 때였다.



클란탄 중국인 역사 박물관의 벽에는 초기 중국인 정착민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다.

이곳의 중국인들은 클란탄 방언이 섞인 말레이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는 다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다른 지역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말레이어를 말할 때 눈에

띄는 억양이 있거나, 아예 말레이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에딘쿠는 말레이 반도 동안(東岸)에서는 문화가 다수 집단과 섞이고 융합되는 문화적 동화 과정이 "매우, 매우 깊다"고 말했다. "클란탄의 중국인들은 매우 깊은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클란탄 사람이라는 의식도 매우 강합니다. 때로는 말레이인들보다 더 강할 정도인데, 이는 말레이시아 다른 지역의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매우 이상하게 보입니다."

에딘쿠는 "그러한 자부심은 클란탄 중국인들 사이에서 매우 강해서, 다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그들을 보며 과연 '진짜' 중국인인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코타바루 출신의 은퇴한 은행가인 63세의 줄키플리 자파르(Zulkifli Jaafar)는 클란탄의 말레이

인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의 중국인들을 “우리 중 하나”로 여겨 왔다고 말했다. “클란탄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구 기타(gu kita)’ — 즉 우리 집단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이들이 지역 방언을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이 클란탄의 말레이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게 만들며, 인종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클란탄 말레이어, 즉 로갓 클라테(loghat Kelate)는 독특한 어휘와 거의 태국어와 비슷한 리듬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말레이 방언에는 없는 음조적 강세가 특징이다.

틱톡 콘텐츠 제작자 나탈리 조이 얍(Natalie Joey Yap)이 클란탄 말레이어를 구사하는 영상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며 널리 퍼졌다. 특히 중국계 인물이 이 억양이 강한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틱톡에서 약 24만 5,000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23세의 그녀와 33세의 남편 윌리엄 탄(William Tan)은 말레이시아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개척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클란탄 중국계 콘텐츠 제작자들 가운데 일부다.



나탈리 조이 얍이 남편 윌리엄 탄과 함께 클란탄 말레이어로 대화하는 영상들은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며 확산됐고, 일부 영상은 각각 1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Kita Cina Kelate’ 즉 ‘우리는 클란탄 중국인이다’ 이다.

“클란탄 방언이 표준 말레이어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는 대중에게 우리 문화와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코타바루 출신의 나탈리 조이 얍은 *The Straits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많은 클란탄 주민들, 말레이인과 중국인 모두가 이 문화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살아있게 하고 싶습니다.”

얍과 윌리엄 탄의 많은 팔로워들은 말레이인이지만, 클란탄 외 지역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도 이들의 영상에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두 사람이 중국의 소셜네트워크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샤오홍슈(小紅書 Xiaohongshu)에 게시를 시작한 이후 그 관심이 커졌다.

일상에서는 말레이어를 사용하지만, 많은 클란탄 중국인들은 또한 호키엔어로 대화하는데, 이들의 호키엔어는 말레이 문법 구조가 섞인 지역적 특색을 담고 있다.

클란탄 중국 역사·문화 협회 회장인 55세의 앨리슨 위(Alison Wee)는 이를 클란탄 주 내 중국인과 말레이인 간의 오랜 상호작용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호키엔어 화자가 자신의 집을 “chu wa”라고 부르는 예를 들었다. 이는 말레이어 구조

“rumah saya(나의 집)”를 따라, 대명사를 명사 뒤에 놓는 방식이다.

중국인과 클란탄 말레이인 간의 긴밀한 관계는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겼다. 캄퐁 치나(Kampung Cina, 중국 마을)의 톰힌콩 사원(Tin Hin Kong Temple)에는 1878년 클란탄 술탄 무함마드 2세가 사원 사제에게 선물한 드럼이 전시돼 있다. 사제는 술탄에게 태국 왕에게 바칠 공물을 실은 함대가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무사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저희 아버지가 이를 보존하기 위해 강철 프레임과 유리 패널을 후원했습니다. 이는 술탄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37세인 사원 청년 대표 잭 간(Jack Gan)이 말했다. 클란탄의 중국 사원에서는 말레이어가 사용되며, 이는 반도 서해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만다린어나 영어와는 다른 점이다.



톰힌콩 사원에 전시돼 있는 드럼

이슬람주의적인 통치의 일상적 영향

19세기 후반부터 이슬람 학문과 문화, 실천에서 오랜 역할을 해온 덕분에 “메카의 베란다”라고 불린 클란탄은 1959년부터 1977년까지, 그리고 1990년부터 오늘날까지 PAS에 의해 통치돼 왔다.

이 곳에서는 35년간 끊임없이 이어진 이슬람당(PAS)의 통치가 일상생활 곳곳에 미묘하게 반영돼 있다.

남녀 분리는 무슬림 참가자가 있는 콘서트와 공연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여성 공연자는 2025년 이후로 여성 관객 앞에서만 공연할 수 있다.

영화관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성별에 따라 좌석을 분리하고, “원치 않는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을 켜 상태로 상영하며, 저녁 기도 시간 동안 상영을 중단해야 한다. 주 내 마지막 상업용 영화관은 1996년에 문을 닫았다.

모든 상점은 남성 무슬림에게 의무인 금요 기도 시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코타바루의 유명한 시장인 파사르 시티 카디자(Pasar Siti Khadijah)에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12시 45분부터 2시 30분까지 남성 상인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지정한다.



클란탄 주의 PAS 당사

공동 기도를 위해 시간이 다가오면 채소 가판대 노동자들은 상품을 바구니에 담고, 신선한 소고기는 그대로 걸어두고 기도하러 떠난다. 남성들이 없는 동안 여성 상인들은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낸다.



클란탄의 한 '특별 식당'. 중국인들 사이에서 재물신으로 통하는 관우(關羽) 그림 오른쪽에 'makanan bukan untuk orang Islam' 즉 '무슬림을 위한 음식이 아님' 이란 문구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코타바루 차이나타운의 청호 광장이 활기를 띤다. 이곳은 클란탄에서 돼지고기와 알코올 — ‘하람’ 즉 이슬람에서 금지된 음식 — 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다.

중국식 대형 아치문이 세워진 광장은 명나라 제독 정화의 이름을 한자로 새기고, 말레이어 이름을 라틴 문자와 아라비아 문자로 함께 표기했다. 이 광장은 2017년 6월 성대한 행사와 함께 개장했다.

아치문 주변 광장은 목요일 밤에 활기를 띠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금요 기도를 고려해 주말로 지정된다. 클란탄 중국인 그룹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이며, 식당들은 인파 때문에 인도 위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한다.



이 식당에서는 맥주도 주문할 수 있다

주정부는 하람 음식 판매를 원하는 식당을 위해 특별 허가 제도를 만들었다. 해당 식당은 반드시 ‘restoran khas(특별 식당)’ 표시를 명확히 보여야 하며, 다른 중국 음식점과 구분된다.

이 허가 제도 하에서, 식당은 규칙 준수를 책임진다. 여기에는 말레이인이나 무슬림으로 보이는 사람이 식당 내에서 식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호텔 직원 35세 타우픽 마맛(Taufiq Mamat)은 음료를 마시러 한 식당에 들어갔다가 정중하게 거절당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냥 탄산음료 한 캔만 마시고 싶다고 말했는데, 주인이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라고 클란탄 출신 말레이인 타우픽은 말했다. “그때야 ‘특별 식당’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클란탄 주 총리 산하 민족 간 업무 담당 특별 기능관 림관생(Lim Guan Seng)은 현재 주 내에 33개의 ‘특별 식당’이 있다고 밝혔다. “무슬림은 이 식당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비무슬림 직원과 고객만 허용됩니다”라고 림은 말했다.

이 중 한 특별 식당에서는 바질을 다져 넣은 태국 음식 돼지고기 밥과 타이거 맥주를 제공하며, ‘무슬림용 음식 아님’이라는 표지판이 중국 재물신의 희미한 상징 옆에 붙어 있다. 여기서 700ml 타

이거 맥주 한 병 가격은 23 말레이시아 링깃(RM), 약 8,700원이다.

하지만 특별 식당을 제외하면, 중국인이 소유한 일반 업소들은 광범위한 고객층에게 잘 이용되고 있다.

코타바루에 있는 중국인이 소유한 할랄 카페 코피티암 키타(Kopitiam Kita)는 하이난식 토스트 빵 위에 반숙 계란, 카야 잼, 마가린을 얹은 로티 티탐(roti titab)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매일 500개를 판매하지만, 학교 방학 기간에는 하루 800개까지도 나가요”라고 주인 왕 니에 후아(Wong Nye Hua)가 말했다.

가게 벽에는 말레이시아 유명 인사와 정부 인물들의 사진이 붙어 있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 지미 추(Jimmy Choo)와 곤란을 겪은 전(前) 총리 나집 라작(Najib Razak)과 그의 부인 로스마 만소르(Rosmah Mansor)의 사진도 포함돼 있다.

말레이시아 다른 지역에서는 말레이인들이 비말레이인 소유 음식점을 피할 수도 있지만, 이곳은 다르다. “우리 고객의 95%가 말레이인입니다”라고 왕은 말했다. “직원 35명도 모두 말레이인입니다.”



코피티암 카페 주인 Wong Nye Hua



코피티암의 유명한 로티 티탐

니크 아지즈 효과

클란탄의 종교 통치와 문화적 수용의 혼합은 이슬람법인 샤리아가 무슬림에게만 적용돼야 하며 소수 집단에게 압박이나 불이익을 주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지도자 덕분이다.

클란탄 최장수 주 총리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한 닷옥 니크 아지즈(Datuk Nik Aziz)는 비무슬림은 결코 2등 시민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故) 니크 아지즈는 중국인 거주민을 “아낙 클란탄(anak Kelantan)” 즉 ‘클란탄의 자식들’이라고 불렀고, “편다탕(pendatang)” 즉 ‘외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중국 설날 행사에 참석하고, 사원을 방문하며, 중국 지도자들과 교류할 때 거만함이나 형식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검소한 생활 방식과 화려함을 배제한 태도는 그에게 높은 청렴성을 부여했다. 클란탄의 중국인 공동체 — 대부분 상인이나 소규모 사업가 — 에게는 이념적 일치보다 도덕적 신뢰가 더 중요했다.

국제이슬람대학(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정치학자 샤자 슈크리(Syaza Shukri)는 니크 아지즈의 개방성이 그의 성격과 정치적 현실의 혼합 덕분이라고 말했다. 샤자 부교수는 “니크 아지즈가 종교적 소수자와 만나고 함께 축하하는 데 더 개방적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항상 다원적 공존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 시기는 PAS가 입장을 완화하고 다른 집단과 협력할 동기가 더 컸던 말레이시아 정치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샤자 교수는 니크 아지즈가 인도에서 받은 교육 배경이 이러한 개방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했다.

“인도의 이슬람 교육은 사회와 공동체 중심입니다. 중동이나 다른 무슬림 다수 국가처럼 상향식(top-down) 접근이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인도에서는 이슬람이 소수 종교이기도 하기에, 공존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중국계 인물은 니크 아지즈의 지도 아래 주정부가 중화독립고등학교(Chung Hwa Independent High School)에 405헥타르의 농지를 할당해, 중국어로 진행되는 사립 교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 정부에서도 소수자 복지는 계속되고 있다. 2017년에는 민족 간 협력을 위한 클란탄 주 민족통합센터(Pusat Integrasi Antara Kaum Negeri Kelantan)가 설립돼 소수 민족과 정부 간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연례적 행사인 칭아이 퍼레이드(Chingay Parade)²는 PAS 주정부의 기부금을 받고, 사원 활동과 시설 유지보수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클란탄에서 PAS의 현재 통치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단일 정치 집권 중 하나로, 2018년 UMNO의 60년 연방 집권이 종료되는 등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운명이 오르내린 것과 대비된다.³

2022년 11월 총선에서 PAS의 승리는 분석가들로 하여금, 당이 연방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게 했다.

말레이시아 전역의 많은 비무슬림에게 이는 깊은 불안을 안겨준다. PAS 대표 하디 아왕(Hadi Awang)은 비말레이인을 부패 책임자로 지목하며, 무슬림만이 말레이시아를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반복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23년 6월 그는 비무슬림이 말레이시아에서 자리를 얻은 것에 “감사해야 하며”, “그냥 말레이인들이 계속 나라를 이끌게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당 지도자들은 니크 아지즈의 통치 모델을 말레이시아 전역의 단결 강화를 위한

² 칭아이 퍼레이드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중국인 설 축제의 일환으로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거리 퍼레이드. 행사는 대개 중국 신(神)들의 생일 혹은 어떤 경우에는 관음보살과 연관돼 치러진다. ‘칭아이’는 흑키엔 방언으로 ‘chin-ge[真藝]’ 즉 ‘참된 예술’과 ‘chng-ge[妝藝]’ 즉 ‘분장 예술’의 합성어에서 파생한 단어다.

³ UMNO(통일말레이국민조직) - 말레이시아 최대 정당으로, 말레이인 우대정책을 표방하는 말레이인 중심의 정당이다. UMNO는 말레이시아의 장기 집권 연합당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의 중심당으로 활약했으나, 2018년 총선 때 국민전선이 패배해 정권에서 물러났다.

본보기로 삼고 있다. 2009년 싱가포르의 당시 고문 장관인 리관유(Lee Kuan Yew)⁴가 클란탄을 방문했을 때, 니크 아지즈는 만약 PAS가 말레이시아를 통치하게 된다면 중국계 말레이시아인과 싱가포르를 어떻게 대할지 질문받았다.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리 장관, 만약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면, 중국인과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클란탄에서 하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리관유 싱가포르 고문장관(좌)과 대화하는 니크 아지즈(우)

현 클란탄 주 총리 나수루딘 다우드(Nassuruddin Daud)는 클란탄에서 말레이인과 중국인 공동체 간의 단결이 말레이시아 전역의 단결을 강화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종 간 단결)은 이 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다득 나수루딘은 2023년에 말했다.

1969년 5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발생한 인종 폭동⁵을 언급하며 그는 “클란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클란탄 사람으로서 한 가족처럼 살아갑니다.”

⁴ 고문 장관(Minister Mentor) -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싱가포르의 총리로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던 리관유는 퇴임 후 2004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싱가포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직 장관으로 활동했다.

⁵ 5·13 인종폭동(5월 13일 Racial Riots) - 1969년 5월 13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발발한 말레이족과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간의 폭력적인 인종 갈등 사건이다. 이 사건의 씨앗은 1969년 5월 10일에 치러진 1969년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민주행동당과 말레이시아 민중운동당 등 중국계 지지 정당의 약진 이후 정치적, 민족적 긴장이 고조되며 발생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총 196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사망자 대다수는 중국계(143명)이고 말레이인이 25명, 인도계가 13명, 기타 15명이었다.

관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하지만 문화적 수용, 종교적 배려, 소속감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클란탄의 경제 침체라는 압박을 견디기에는 부족했다. 클란탄의 청년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주의 절대 빈곤율은 약 11.5%로,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가장 높다. 클란탄 경제는 도매와 소매업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주 총생산(276억 링깃, 약 10조 4,604억 원)에서 70%를 차지한다. 농업은 20%를 기여하며, 나머지는 소규모 제조업 기반에서 나온다. 주요 산업이 없기 때문에, 클란탄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2023년에는 총 2억1,796만 링깃(약 826억 700만 원)이 지원됐다.

2017년 당시 클란탄 부총리 모하마드 아마르 니크 압둘라(Mohd Amar Nik Abdullah)가 “주정부는 클란탄의 느린 발전 속도를 알고 있지만, 이는 ‘의도적’이라고 말한 발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주 내외를 오가는 순환적 이주에도 불구하고, 클란탄은 점차 인구를 잃고 있으며, 주로 산업이 발달한 서해안 주인 느그리슴빌란(Negeri Sembilan), 슬랑오르(Selangor), 피낭(Penang), 조호르(Johor)로 떠난다.

강한 클란탄 정체성을 지닌 청년들조차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쿠알라룸푸르와 슬랑오르로 이주하고 있다.

32세의 보험 설계사 데니스 코(Denis Koh)는 고등학교를 마친 직후 주를 떠났다고 말했다.

“고향과 그곳에서의 삶을 사랑하지만, 제가 꿈꿔온 삶을 쫓고 싶습니다. 지금도 가끔 돌아가지만, 여기가 이제 제 집입니다”라고 쿠알라룸푸르 외국인 거주지 몽키아라(Mont Kiara)에 거주하는 코가 말했다.

고등학교 이후 쿠알라룸푸르 다만사라(Damansara) 지역으로 이주한 55세의 정보기술 컨설턴트 리씽씽(Lee Thing Thing)은 “여기서 제 삶을 구축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학교 친구들 대부분도 쿠알라룸푸르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클란탄 중국인으로서 쿠알라룸푸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마찰도 있다. 35세의 마케팅 임원 재키 친(Jackie Chin)은 클란탄 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중국계 사이에서도 낙인이 찍힌다고 전했다.

“한 번은 제 이웃이신 노부인이 클란탄에서 나무 위에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2020년에 이런 말을 듣다니 충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다만사라의 클란탄식 nasi dagang(식당에서 주말마다 익숙한 고향의 맛에서 위안을 찾는다.

“원래 가게는 코타바루에 있습니다. 여기가 유일한 지점이죠”라고 그는 말했다. “저를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클란탄식 말레이어로 이야기하는 소리에서도 느낍니다.” □

태국 카렌침례교회의 선교와 총회회관 설립

오영철(GMS 선교사)

태국 카렌침례교회의 선교정책과 시행규정

최근 변화하는 선교를 깊이 실감한다.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와 선교를 받는 지역이라는 전통적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요즘 며칠 동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일도 바로 이러한 변화와 관련돼 있다. 그것은 현지 교단인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선교정책과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것은 선교지로 여겨지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변화해 가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2026년 1월 28일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선교사 파송을 결정했다. 이는 역사적인 일이다. 그러나 선교사 파송을 결정했다고 해서 선교 사역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 첫 단계는 현지 교단이 선교정책과 시행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결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 일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다. 내가 아는 한 태국에서 교단 차원의 선교정책과 시행규정을 만드는 시도는 처음이었다. 총회 총무는 나에게 그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이러한 선교사 파송 정책을 본 적도 없었고, 내가 선교사 파송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선교사로 사역한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적합한 선교정책과 시행규정을 만드는 일에는 주님의 지혜가 절실하다. 태국 카렌교회는 서양이나 한국과 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교회도 선교해야 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그래서 몇 가지 방향성을 세워 봤다. 그것은 성경적이면서도 이들의 현실과 상황에 적합하고, 그들의 신앙 유산과 특징을 잘 담아내는 것이다. 동시에 지나치게 복잡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요소를 놓쳐서도 안 된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모두 18개의 항목으로 선교정책과 시행규정 초안을 만들었고, 총회 총무와 상의해 수정한 뒤 제출안을 마련했다.

내용 가운데 특히 이 교회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고민했다. 첫째는 “약함으로의 선교”이다. 이것은 카렌교회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현실과 연결된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선교 원리”라는 제목으로 담았다.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카렌교회 선조들의 모습이기도 하며, 오늘날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교회의 선교 원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토착교회 설립의 원리”이다. 나는 카렌교회가 세계에서 자립적인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카렌침례교회는 모든 교회가 자립적인 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카렌 교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 봤다. 이것을 “국수 한 그릇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안했다. 국수 한 그릇 값 정도를 매달 선교헌금으로 드리자는 것이다. 오

병이어를 드렸던 무명의 소년처럼, 모든 계층의 성도들이 작은 헌신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6년 3월 11일 태국카렌침례총회 요엘라 총무와 대담하는 오영철 선교사

재정에 관한 부분은 큰 도전의 영역이다. 경제적으로 한국이나 서양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싱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필요한 한 달의 재정을 30,000바트(약 900달러)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약 15,000바트(450달러)는 월급이고, 나머지 15,000바트는 선교 사역에 필요한 공동사역비, 렌트비, 언어훈련비, 비자 수수료 등등을 포함한 사역비이다.

매달 30,000바트는 태국카렌침례총회 목회자들의 평균 사례비의 약 다섯 배가 넘는 액수이다. 이 금액을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래서 네 개의 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파송하는 방식을 답았다. 파송 교회의 선교비 기준을 매달 5,000바트(약 150달러)로 정한 것이다. 이 정도도 이들에게 작지 않다. 카렌 목회자의 평균 한 달 사례비 정도이다. 중요한 원칙은 이 헌금이 외부 후원이 아니라 카렌교회와 성도들의 선교 헌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이다.

또한 앞으로 카렌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선교지를 방문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하도록 시행 규정에 담았다. 만약 선교비 방문을 외부 지원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선교 사역이 의존적인 구조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특별 사역이나 연합 사역, 긴급 프로젝트, 선교 동원과 인식 확산 등의 경우에는 외국 교회와 선교단체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카렌교회가 선교 사역의 중요한 재정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건강한 선교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교 역사학자 라토렛(Kenneth Scott Latourette)은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가 1792년에 영국침례교선교회(Baptist Missionary Society)를 설립한 것을 근대 선교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한 선교회의 설립은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이후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와 CMS(Church Missionary Society) 등이 설립되면서 19세기의 위대한 선교 운동이 시작됐다.

나는 지금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선교위원회를 만들고 선교정책을 세우는 일이 이러한 흐름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엘라 총무는 이 초안이 5월 태국침례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친 후 공식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태국에서 선교 운동이 확산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소수민족 교회가 선교를 실천하는 모습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들이 태국에서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고 믿는다.

세계 교회와 선교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 과거 선교지로 여겨졌던 글로벌 사우스(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가 이제는 세계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오늘날 세계 선교를 역동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카렌교회 역시 과거에는 선교지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새로운 기독교 환경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보여준다. 선교지와 피선교지라는 구분도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그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카렌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이끌고 계신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정책과 시행규정은 바로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그 변화를 바라보고 또 그 변화 속에 참여하는 일은 선교사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배운다.

역사적인 날: 우리 스스로 총회 회관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선교 역사에서 전환점은 종종 의외의 사건과 맞물려 나타난다. 문제처럼 보이던 일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026년 1월 28일 태국카렌침례총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바로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 그것은 총회회관 건축과 관련된 일이었다.



2026년 1월 28일 태국카렌침례총회 운영위원회

2026년 1월 28일, 태국카렌침례총회 운영위원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첫째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한 것이고, 둘째는 총회회관 건물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 총회회관 건축 결정은 예상치 못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총회회관 건축 논의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그만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처음 두 차례의 결정은 대부분 외부 지원을 받아 건축하자는 방향이었다. 첫 번째는 약 10여 년 전, 컴패션(Compassion)의 지원으로 건축하기로 한 일이었다. 당시 컴패션에서 일하던 카렌 지도자들의 제안에서 시작된 계획이었고, 규모도 적지 않았다. 결의까지 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컴패션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결정 때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부분의 재정을 외부에서 조달해 건축하자는 계획이었다. 당시 총회장께서 미국, 스웨덴, 그리고 한국 선교사인 나를 불러 어느 정도 후원할 수 있는지 물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누구도 분명한 긍정의 답을 하지 못했다. 이후 다시 모여 후원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마침 한 선교사가 돕기로 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기공에 배를 드렸고, 곧 건축이 시작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시청에서 요구한 기준에 맞는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개발 제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심사는 까다로웠고, 허가 기간도 길어졌다. 그 사이 후원을 약속했던 교회의 형편도 달라졌다. 결국 지난해 기대했던 외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태국 카렌침례총회 회관 모형도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우리가 스스로 건축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겨난 것이다. 총회 임원들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자원을 보기 시작했다. 개발 제한을 고려해 건축 규모를 다시 설계했고, 새로 허가를 요청하자 곧바로 승인이 내려졌다. 그리고 1월 28일, 이 안건이 총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있었다. 임원들이 먼저 희생의 본을 보인 것이다. 다섯 명의

임원은 각자 2만 바트(약 100만 원)를 헌금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회 직원, 목회자, 지방회 임원들도 특별 헌금을 약속했다. 임원들이 직접 교회들을 방문해 모금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에는 선교 단체나 선교사로부터의 후원 항목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묻기 시작하자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참석자 모두가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가에서 받는 기초연금 한 달을 드리도록 합시다.”

“제안한 액수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헌금해 건축해야 합니다.”

이전의 건축 논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외부 의존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결단이었다. 잠시 정회 후 다시 모였을 때 더 놀라운 결단이 나왔다.

“우리 임원들은 2만 바트가 아니라 3만 바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3만 바트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 이후 안건은 순조롭게 통과됐다. 결정이 내려진 뒤 싱곤 총회장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줬다.

“우리는 태국카렌침례총회 역사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 건물은 우리가 스스로 건축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는 건축에 대한 부담보다 자긍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총회회관의 이름도 이전과 달라졌다. 두 동 가운데 한 건물은 <복음 175년 기념 건물>, 다른 한 건물은 <총회 75주년 기념 건물>로 정해졌다. 외부 지원을 전제로 할 때는 후원자의 의도가 이름에 반영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1881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기준으로 한 175년과, 1955년 총회 설립을 기념하는 2031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건물의 사용 또한 외부의 의도가 아니라, 총회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데이빗 보쉬는 선교 역사에서의 전환점을 교회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변화, 곧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싱곤 총회장의 말은 매우 적절하다. 총회회관을 스스로 건축하기로 한 결정은 태국카렌침례총회 역사에서 분명한 전환점이 되었다.

만약 총회 건물이 외부 후원으로 세워졌다면 이러한 과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건축은 잠시 멈췄지만, 그 시간은 카렌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로 나아가게 했다.

그 과정에서 세워진 것은 단지 건물만이 아니다.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이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총회회관을 스스로 건축하기로 결정한 2026년 1월 28일은 실로 역사적인 날이다.□

동남아시아의 최근 상황

1. 동남아시아 일반

동남아시아, 중동 전쟁의 압박을 체감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으며, 그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가스 및 석유 수송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이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습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원유에서 항공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공급망 충격은 한꺼번에 발생하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각국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 국내 생산과 비축 규모, 그리고 석유와 가스를 어디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많은 이들의 기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신속히 종결할 것이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시장의 반응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들에서는 단기적인 교란만으로도 큰 고통이 따르며,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주간의 혼란 이후 동남아시아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필리핀과 태국은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들 중 두 곳이다. 두 나라는 에너지 순수입국이다. 필리핀은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공급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다. 필리핀의 에너지 가격은 시장 변동에 매우 민감해, 국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에게 신속히 전가된다. 이미 가격은 급등했다.

그 결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3월 24일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무원들에게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가격 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다.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거나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는 필리핀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 국가들에서 여전히 미지수다.

태국 역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공무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연료배급 비상계획도 마련했다. 소매 연료가격은 상승 중이며, 디젤 가격은 3월 31일 리터당 40바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하루 약 15억 바트(4,500만 달러)의 비용으로 보조금을 통해 일부 인상분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국내 공급을 보존하기 위해 연료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공급망 충격이 무역 네트워크 전반에 파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태국은 이 지역의 주요 정유 허브로, 2024년 정제 석유 제품을 75억 달러어치 수출했다. 현재 그 수출 물량 대부분이 국내 시장용으로 전환되면서 태국산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추가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가격 상승 압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농업 같은 다른 부문으로도 영향이 확산될 것이다.

태국과 필리핀처럼 보조금 제도가 제한적인 에너지 순수입국들이 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격 변동을 통제할 강력한 장치를 갖춘 이 지역의 에너지 부국들조차 이제는 피해를 직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말

레이시아에서는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는 특정 연료에 대해서는 월 약 40억 링깃(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역시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관대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도 가격 인상을 억제해 왔다. 4월 1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보조금이 적용되는 연료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연료 종류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며, 금요일에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가격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손실을 감수할 의지도 있어 보인다.

몇주 전 언급했듯이, 자원 보유 상황과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조금 더 있으며, 갈등이 조속히 끝나기를 기대하며 시간을 벌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전략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이번 사태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파괴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와 가스 수송이 다시 원활해지기 전까지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번 군사적 충돌을 통해 이 지역 정부들로 하여금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을 예산으로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전가할 것인지라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부도 타국의 군사적 모험주의 때문에 떠안고 싶지 않은 선택이다. 많은 이들이 바라듯 갈등이 곧 종결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번 사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동남아시아의 경제와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 [The Diplomat, 2025/7/2]

2. 미얀마

선거 후 국가 대통령직을 맡을 예정인 민 아웅 흘라잉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은 2026년 3월 새 의회가 소집될 때 국방군 총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나 국가 대통령직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단순한 권력 이양이라기보다 미얀마 전역의 일부 지역만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정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권력 재편으로 보인다.

군 및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BBC 버마어 보도에 따르면, 외교장관 탄 스웨(Than Swe)는 태국 외교장관 시하삭 푸앙켓게오(Phuangketkeow)에게 민 아웅 흘라잉을 대신할 새로운 국방군 총사령관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아웅 흘라잉은 2011년부터 이 직책을 맡아 왔다.

고위 관계자들은 그가 대통령직으로 이동하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선거 기간 동안 민 아웅 흘라잉은 단지 “의회가 소집되면 그들 나름의 절차와 선출 방식이 있다”고만 언급했다.

군부가 지원하는 연방단결발전당(USDP)은 2025년 12월 말부터 2026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하윈(Pyithu Hluttaw 피투 흘루타우) 264석 가운데 233석, 상원(Amyotha Hluttaw 아모타 흘루타우) 224석 가운데 108석을 차지했다.

또한 2008년 군이 작성한 헌법에 따라 의석의 4분의 1이 군에 할당돼 있기 때문에, USDP는 차기 정부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게 될 전망이다.

유엔과 인권 단체들은 이 선거를 군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방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동시에 국방군 총사령

관 직을 겸임할 수 없지만,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새로운 제도적 기구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난 지 며칠 후, 국영 매체는 민정 행정과 군(Tatmadaw 탕마도) 모두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5인 구성의 '연방 자문위원회' 창설을 발표했다.

미얀마 전략정책연구소의 나잉 민 칸트(Naing Min Khant)에 따르면, 이 기구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위에 위치한 일종의 "초권력 기구(super-body)"로, 사실상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민 아웅 흘라잉이 군 직책을 내려놓으면서도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소식통들이 전하듯 그가 직접 새 총사령관을 선택한다면 탕마도 내부의 연속성과 충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정의 2인자인 소윈(Soe Win) 장군 역시 새로운 권력 구조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의 국제적 위상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을 대신해 중국을 방문한 첫 군정 고위 인사이기도 했다.



미얀마 군정 제2인자 소윈 장군

올해 춘절 행사에서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 마지아(馬珈)는 2025년에 중국과 미

얀마 관계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올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소윈을 대신 보내 자신을 대표하게 했는데, 일부 관측통들은 이를 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소윈은 평화 과정에서 중국이 한 역할과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2024~2025년 중국이 미얀마 북부 분쟁에 결정적으로 개입했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무장저항 세력이 영토를 확대하자 중국은 전장(戰場) 상황의 균형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군정이 여러 지역에서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연설에서 소윈 장군은 미얀마를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교차로로 묘사하며,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통로로 보는 중국의 시각을 반영했다.

그는 중국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라카인(여카잉)주 짜옥퓨(Kyaukphyu) 심해항(深海港), 카친(Kachin)주 밋손(Myitson) 댐, 짜옥퓨와 윈난을 연결하는 약 800킬로미터 길이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그리고 짜옥퓨-쿤밍 회랑의 첫 구간인 뮤세-만달레(Muse-Mandalay) 철도가 그것이다.

의회는 2026년 3월 소집될 예정이며, 2010년·2015년·2020년의 선거 이후 정권 이양 일정과 유사하게 새 정부는 4월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윈이 부통령이나 새 연방 자문위원회의 핵심 인물로서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을 안심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 아웅 흘라잉의 대통령 취임 과정에서 군 내부 분열을 피하기 위해 권력을 군 수뇌부 사이에 분배하는 것이다.

여러 논평가들은 군 서열 3위인 참모총장 포스와 린(Kyaw Swar Lin) 장군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오랫동안 민 아웅 흘라잉의 후계자로 여겨져 왔다.

몇 달 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얀마는 민간인 대통령, 전임자가 선택한 국방군 총사령관, 그리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연방자문위원회를 동시에 갖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직함이 바뀐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내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전쟁은 점점 소모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광대한 지역이 여전히 야권 세력의 통제 아래 있으며, 이들은 2021년 쿠데타 이후 군과 싸워 왔고 작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망명 중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자신들이 미얀마 국민의 정당한 대표라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를 거부했고, 군정을 전복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AsiaNews, 2026/2/24]

3. 라오스

짬빠삭에서 아시아 최초 수소 기반 커피 로스팅 공장 가동

라오스는 짬빠삭 주에 아시아 최초의 수소 기반 커피 로스팅 공장을 출범시키며 자국 커피 산업 고도화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이번 조치는 수출 가치를 높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 커피는 연간 2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는 주요 농업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수소 기반 로스팅 도입은 부가가치를 크게 높이고 고급 국제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 산업은 농촌 생계와 국가 수출 수입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정부는 산업 강화를 위해 현대적 가공, 혁신, 부가가치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짬빠삭 주에 위치한 이 공장은 니시오 류타로(Nishio Ryutaro)가 이끄는 일본 기업, 현지 커피 생산자, 라오스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개발됐으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생산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했다.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파일럿 시설은 약 200도에서 수소 연료를 사용해 커피 원두를 로스팅하며, 원두의 자연 향과 풍미를 보존한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 공정은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수소 기반 로스팅으로 생산된 라오스 커피

이 프로젝트는 라오스의 풍부한 수력 자원 덕분에 가능해졌으며, 이는 인접 국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에너지 경쟁력은 친환경성을 유지하면서도 고품질 커피를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파일럿 성공에 힘입어 연간 5,000톤 생산 능력을 갖춘 대형 공장이 현재 건설 중이며, 2027년 본격 가동이 예상된다.

니시오 씨는 NHK 월드 뉴스 인터뷰에서 “수소 로스팅 커피를 라오스의 대표 상

품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품질, 지속 가능성, 혁신을 바탕으로 라오스 커피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술적 측면을 넘어 이 프로젝트는 지역 농가에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부가가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소득을 개선하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 ‘100% 클린 커피’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 고급 소비자층을 끌어들이며 라오스 커피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커피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와 개발 파트너들은 지난 10년간 생산성, 품질,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투자해 왔다.

볼라웬(Bolaven) 고원이 주요 재배 지역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풍살리(Phongsaly), 후아판(Huaphan, 씨엥쿠앙(Xiengkhouang) 등 북부 지역에서도 커피 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생산자들도 점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Vientiane Times*, 2026/1/20]

4. 캄보디아

태국에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귀환한 이후 급감한 해외 송금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최신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유입 자금은 2025년에 23.6% 감소해 약 21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감소는 양국 간 국경 긴장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귀국하게 됐다.

전체적으로 태국은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중 77%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 금액은 28.4% 급감했다.

한국에서의 송금도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한 법적 단속으로 인해 여러 차례 송환이 이뤄지면서 15.2% 감소했다. 반면 일본에서의 송금은 22.5% 증가해 예외를 보였다.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 90만 명이 넘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태국에서 귀환하면서 많은 가게의 소비 여력이 감소했으며,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태국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국내 시장에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균형을 겪게 될 것이다.



태국에서 귀국하는 캄보디아인들

또한 3월 21일 발표된 노동 및 인권 연대 센터(CENTRAL)의 보고서는 최근 귀환한 이주민들이 기만적인 취업 제안, 부채, 제한된 지원 서비스 접근 문제에 노출돼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캄보디아 노동부는 약 65만 명의 귀환자가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으며, 농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9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자체 통계는 중앙은행 자료와 차이를 보이며, 2025년 해외 캄보디아인들의 송금액이 18억 6천만 달러로 전년 29억 5천만 달러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나타낸다.

또한 양측 모두 인정하지 않는 국경 획정을 둘러싸고 촉발된 캄보디아와 태국 간 무력 충돌은 무역에도 영향을 미쳐 캄보디아 가게의 경제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다.

캄보디아 외무장관 프락 소콘(Pr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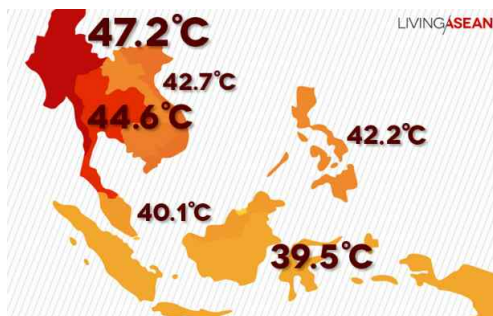
Sokhonn)은 영토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전투를 끝내기 위해 캄보디아가 태국에 영토를 양도했다는 소셜미디어상의 주장들을 부인했다. [AsiaNews, 2026/3/31]

5. 태국

2070년경에는 사하라 사막처럼 더워질 수 있는 태국

태국은 2070년까지 오늘날 사하라 사막과 유사한 극한 고온 조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가 인간 사회가 역사적으로 번영해온 온도 범위를 점차 넘어서는 방향으로 세계 일부 지역을 밀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경고는 기후 커넥터스 프로그램의 디렉터 타라 부아캄스리가 오언 멀헌(Owen Mulhern)의 2020년 기사 「Too Hot To Live: Climate Change In Thailand 살기에는 너무 더운: 태국의 기후 변화」와 쉬(Xu) 등 연구진의 영향력 있는 2020년 연구 「Future Of The Human Climate Niche 인간 기후 틈새의 미래」를 언급하며 강조한 것이다.



이 연구는 기온 상승이 인간 거주 가능성의 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록상 가장 더운 20개 연도 중 19개가

2001년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이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연구의 핵심 개념은 '인간 기후 틈새 (human climate niche)'로, 이는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하고 정착하며 문명을 형성해온 비교적 좁은 온도 범위를 의미한다.

논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인간 인구는 평균 연간 기온 약 11~15도 범위에 집중돼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범위보다 더 더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가 적응 가능한 조건 안에 있다.

문제는 평균 기온이 29도를 넘어설 때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은 현재 지구 육지의 약 0.8%에서만 나타나며, 주로 사하라 사막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배출 시나리오에서는 이 지역이 크게 확대돼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현재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수준의 고온에 노출될 수 있다.

태국의 경우 그 의미는 매우 심각하다. 현재 평균 연간 기온이 이미 약 26도로 위험 구간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기후 전망에 따르면 세기 말까지 태국은 29도 임계치를 넘어서며 사막 기후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더 더운 날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경제 활동이 전통적으로 번영해온 조건과 크게 다른 기후 체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미 이러한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태국은 40도를 넘는 기온을 흔히 경험한다.

2016년의 심각한 폭염 당시, NASA 지구관측소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지표 온도는 평균보다 최대 12도 높았다.

또한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일일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거나 동물을 기록했으며, 2016년 4월 28일 매홍손에서는 44.6도가

기록돼 당시 태국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미래의 '약한' 폭염이 현재의 가장 위험한 폭염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극한 고온이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다.

기온 상승은 건강, 노동 생산성, 농업,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온은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병 위험을 높이며, 저소득층, 고령자, 야외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

농촌 지역은 냉방 설비 접근성이 낮아 특히 취약하다.

극심한 더위는 야외 노동 효율을 떨어뜨리고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며 냉방 수요 증가로 전력 소비를 늘린다.

이는 에너지 생산이 화석 연료에 의존할 경우 기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즉, 고온은 공중보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불평등, 국가 회복력에도 장기적인 부담이 된다.

에어컨은 생존 전략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냉방을 확대하려면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하며, 에너지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적응 전략이지만,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위기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태국에서는 극한 고온이 가뭄 심화, 홍수 증가, 해수면 상승과 결합돼 해안 지역과 주요 경제 지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겹치는 복합적 기후 위험으로, 적응을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든다.

따라서 이제 논의는 단순히 더운 날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넘어섰다.

더 가혹한 기후 속에서도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 에너지 시스템, 공중보

건, 경제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재설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는 대규모 투자와 장기적 계획,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태국이 사하라처럼 더워질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현재 선택의 결과에 대한 경고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높다면 인간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 것이며, 태국과 같은 열대 국가는 그 최전선에 서게 된다.

반대로 배출을 빠르게 줄이고 적응을 가속화하며 더운 세계에 맞는 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다.

결국 이 폭염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 삶의 미래, 그리고 문명을 지탱해온 공간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The Straits Times 2026/4/18]

방콕의 유명 쇼핑몰 BMK에서 10만 점 이상의 위조상품을 압수한 태국 당국

태국 당국은 미국 무역 당국이 방콕의 한 유명 쇼핑몰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목한 이후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쇼핑몰에서 약 100만 미달러(128만 싱가포르달러)에 달하는 10만 점 이상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2026년 3월 13일 빠툼완(Pathum Wan)구에 위치한 마분크롱 센터(MBK Center)에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이 쇼핑몰이 3월 초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년 위조 및 불법복제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이 쇼핑몰 단지를 위조 상품이 판매되는 장소로 지목했다.

지식재산국 아우라몬 수프타위툼

(Auramon Supthaweethum)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단속에서 태국 상무부 당국과 특별수사경찰이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대량의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주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방, 신발, 의류 및 패션아이템이었다.



방콕의 마본크롱 센터

지식재산국이 공개한 사진에는 수십 개의 대형 상자와 쓰레기 봉투에 빼곡히 담긴 물품들과 나이키 로고가 붙은 신발을 들고 있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번 단속은 태국의 소매 및 관광 산업에 걸린 이해관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관광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2%를 차지하며, 방콕의 쇼핑물들은 수백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2025년 관광객 수가 3,300만 명으로 감소하고, 중동 지역 긴장 속에 3,670만 명 목표 달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당국은 국가 이미지 개선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또한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및 관세 협상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방콕이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신호이기도 하다.

아우라몬 국장은 쇼핑물 측이 위반 세입자들과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상품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 Straits Times, 2026/3/13]

6. 베트남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된 또렘

전임자 응우옌푸쑹의 사망 이후 2024년 8월 총서기에 오른 또렘은 2026년 1월 23일 종료된 베트남 공산당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만장일치 재선됐다.

향후 5년 동안 그는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직위를 맡게 된다. 신임 중앙위원회 180명 전원의 지지를 받은 그의 재선은 일당 체제 국가에서 그의 지도력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에 연속성과 안정성의 신호를 보낸다.

투표 직후 연설에서 69세의 또렘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목표로 삼으며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크게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공직자의 성과를 실제 결과에 따라 평가해 청렴성·역량·재능·책임성에 기반한 통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렘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당대회는 연간 10% 경제성장 목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하고, 당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새로운 정치국의 19명 구성원도 임명했다.

새 정치국 명단의 맨 앞에는 또렘이 올랐고, 그 뒤를 국회의장 쩌탄민만과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전 중앙은행 총재 레민흥 같은 주요 인물들이 이었다.

명단의 더 아래에는 사실상 국가 내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로 널리 평가되는 국방 장관 판반장이 포함됐지만, 현 총리 팜민찐과 국가주석 르엉끄엥은 제외돼 당내 추가적인 권력 재편을 시사했다.

응우옌푸쫑의 질병과 사망 이후 2024년 중반 시작된 그의 이전 임기 동안, 또렘은 행정 절차를 줄이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에 힘입은 급속한 경제성장 국면을 감독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수만 명의 공무원을 해임하게 하면서 사회적 불만과 내부 저항을 낳아 강한 비판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긴장을 인식한 또렘은 당내 여러 계파, 특히 베트남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 했다.

그는 한편 당 총서기 직에 더해 베트남 국가주석 직까지 겸임하려는 의도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중국의 시진핑처럼 국가의 두 가장 강력한 직위를 한 사람이 맡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으로 집단 지도체제와 내부 균형에 기반해 온 체제 안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연간 10%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렘은 역사적으로 저임금 노동과 수출에 의존해 온 베트남의 경제 모델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혁신과 효율성,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 베트남을 중상위 소득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ASEAN+3 지역경제전망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7.6%로 전망되며, 이는 다른 모든 동남아 국가와 중국, 일본, 한국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베트남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이른바 ‘대

나무 외교’에 힘입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AsiaNews, 2026/1/26, 2026/1/23]

7. 인도네시아

대화과 온건주의의 기치로 성장해온 나흐들라툴 올라마의 창립 100주년

2026년 1월 31일, 최소 1억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이자 가장 온건한 이슬람 단체인 나흐들라툴 올라마(NU)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이 단체는 대화, 종교 간 교류, 극단주의와의 싸움, 그리고 모든 형태의 근본주의에 맞설 준비가 된 열린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이는 이슬람 신앙에 대한 인도네시아식 해석을 보여준다.



NU 창립 100주년 기념회의

1344년 라자브(rajab) 즉 이슬람력에서 전쟁과 갈등이 금지되는 4대 성월(聖月) 중 하나인 7번째 달 16일(양력 1926년 1월 31일)에 동자와(East Java) 주 주도 수라바야(Surabaya)에서 설립된 이 단체는 긴 여정을 거쳐 오늘날 인도네시아 최대의 이슬람 조직으로 성장했다.

2억 8,6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신도를 보유한 종교 단체가 100년을 이어온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NU의 회복력은 단지 조직 구조만이 아

나라, 영적 유대, 페산트렌(이슬람 기숙학교)의 전통, 그리고 올라마 즉 이슬람 학자들의 도덕적 권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하드라투스셰이크 KH M. 하심 아스야리(Hadratussyekh KH M. Hasyim Asy'ari)와 동료 올라마들에 의해 설립된 이후, 이 단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 왔다.

이번 100주년의 주제인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수호하며, 고귀한 문명으로 나아가다”는 두 가지 주요 사명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사명이다. NU는 1945년의 지하드 즉 성전(聖戰) 결의에서 드러나듯 공화국의 독립 투쟁과 그 공고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번째는 문명적 사명이다. NU는 형식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도덕적 수준, 사회 정의, 그리고 공공 윤리에 기여해야 한다.

오늘날 독립을 수호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불평등, 공공 윤리의 위기, 실질적 정의의 약화, 그리고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의 감소가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흐들라툴 올라마는 공공 복지의 원칙에서 권력이 벗어날 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도덕적 힘으로 남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세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도전도 제시한다.

종교 권위의 분산은 이제 올라마가 종교 지식의 유일한 기준점이 아님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는 학문적 규율과 윤리적 전승 체계에서 종종 분리된 즉각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NU의 과제는 단순히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tawadhu' 타와두), 윤리적 이견의 표현

(adab al-ikhtilaf 아답 알 이크틸라프), 그리고 지적 깊이가 종교 생활의 기반으로 남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 게 그러하다.

또한 천연자원 관리 참여를 포함한 경제적 자립 문제 역시 윤리적 도전을 제기한다. 조직의 자립이 중요하지만, 모든 경제적 행보는 사회적 책임과 생태적 정의의 틀 안에 머물러야 한다.

100주년 기념 행사의 절정은 2월 8일 말랑(Malang)의 가자야나(Gajayana)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수십만 명의 나흐들리인(Nahdliyin) 즉 NU 회원들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가 참석했다.

동자와 NU 대표 KH 압둘 하킴 마흐푸즈(KH Abdul Hakim Mahfudz)는 국가와 조직의 삶이 연민과 형제애 위에 세워지고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함마디야(Muhammadiyah) 회원들과 지역 모스크 공동체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는 오랫동안 NU의 사명을 특징지어 온 조화의 정신을 상징했다. 100주년은 단순한 연령의 축하가 아니라 도덕적 약속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세기는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문화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헌신에 충실할 수 있는지, 양심을 인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교를 단순한 사회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롭고 고귀한 문명의 원천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시험될 것이다. [AsiaNews, 2026/2/11]

8. 말레이시아

업그레이드된 신종 구걸 행위 억제를 촉구하는 말레이시아 당국

이들은 마리오(Mario)나 도라에몽

(Doraemon) 같은 게임·만화 캐릭터, 혹은 동물이나 공룡 복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말레이시아의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복장 인물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기부금을 요청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쿠알라룸푸르의 한 바자르에서는 무더운 늦은 오후, 음식과 음료를 파는 노점들 사이로 사람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멀리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은, 밝은 초록색 개구리 복장을 한 사람이 작은 검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지나가도 가만히 서 있었고, 가끔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 부모들이 걸음을 멈추고 단체 셀카를 찍었다.



쿠알라룸푸르의 한 바자르에서 개구리 복장을 하고 구걸을 하는 모습

아이들은 떠나면서 뒤돌아 손을 흔들기도 했지만, 그 개구리 복장 속 인물이 사실은 어린아이였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 아이에게 나이를 묻자 “아홉 살”이라고 답했다.

그는 목에 건 검은 상자를 한 손으로 붙잡고 있었고, 그 안에는 1 링깃 지폐들이

들어 있었다.

“누구를 위해 돈을 모으는 거니?”라는 질문에, 그는 자신을 가리켰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근처에는 회색 라부부(Labubu) 인형 복장을 한 또 다른 아이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고 있었다.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분홍 토끼 복장을 한 14세 소년이 어린아이와 부모와 함께 셀카를 찍고 있었다.

이 토끼 복장의 팁 상자에는 QR코드까지 있어, 사람들이 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었다.

이것은 최신 유행처럼 보인다. 귀여운 복장을 한 구걸자다.

의상은 상당히 좋은 품질로, 내부에 팬이 달려 있어 착용자가 덥지 않게 해준다. 비슷한 라부부 의상은 온라인에서 600~1,000 링깃 정도에 판매된다.

이들 구걸자, 주로 미성년자들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상호작용해 부모들로부터 돈을 얻는다.

일부는 노점상들로부터 음식과 음료를 무료로 받기도 한다.

또 다른 소년은 개구리 복장을 하고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개구리 모양 풍선을 팔려고 돌아다녔다.

이 구걸 무리는 해가 질 때까지 머물다가, 사람이 줄어들고 노점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 자리를 떠난다.

조호바루에서는 이런 복장 구걸자들이 주유소, 야시장, 라마단 바자르 등에서 점점 더 자주 목격되고 있다.

심지어 차량 사이를 오가거나 교차로 한 가운데 서 있는 모습도 보인다.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카말(Kamal)이라고 밝힌 61세 남성은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3시간

에 최대 100 링깃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작년에 은퇴한 이후 아직 공부 중인 자녀들이 있어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전에 청소부였던 그는 결국 밝은 색 개구리 복장을 입고 돈을 구걸하게 됐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1~2 링깃을 주고, 가끔 10 링깃을 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지나가는 경찰은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만 합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 계속할 것입니다.”

소니(Sonny)라고 알려진 60세 로힝자 여성은 12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복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신분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성 액세서리를 팔았지만 몇 년 전부터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호랑이 복장을 입고 구걸을 시작했으며, 몇 시간 만에 70~100 링깃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스쿠다이(Skudai) 지역구 의원 마리나 이브라힘(Marina Ibrahim)은 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복지부(JKM)와 관련 기관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 마스크트들은 쿠라이(Kulai) 쇼핑 몰 앞에서도 보입니다.”

“이들에게 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조장하게 됩니다.”

조호르 JKM 국장 아마드 하심 슬라맛(Ahmad Hashim Selamat)은 2026년 2월 26일, 잘란 파디 에마스(Jalan Paaf

Emas) 1 교차로에서 모금을 하던 세 남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장을 입은 채 조호바루 JKM 사무소로 연행됐으며, 구두 및 서면 경고 후 풀려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재발 시 노숙자법(Destitute Persons Act)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아마드 국장은 이러한 행위가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구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부분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가족도 있고 거주지도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당국과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he Straits Times, 2026/2/28]

9. 싱가포르

노동자와 AI에 집중한 싱가포르의 성장 전략

싱가포르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5% 증가해 미국의 관세로 인한 부분적이고 비교적 완만한 성장 둔화 가능성을 고려했던 신중한 공식 전망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2월 12일 로런스 웡(Lawrence Wong) 총리가 발표한 새 예산안은 무엇보다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싱가포르 모델”을 이끄는 원동력인 노동자들에게 혜택과 더 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체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현지 상황은 가능성, 잠재력, 다양성, 그리고 충족돼야 할 필요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보여주며, 정부는 무역과 개발에서부터 주택과 고용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몰라카 해협에 위치한 이 도시국가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지역 및 세계적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올해 성장을 전망이 2%에서 4% 사이로 제시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또 다른 과제는 고용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인프라와 잠재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긴장이 비교적 낮고 전략적 위치에 있다. 또한 한때 주요 경쟁자였던 홍콩이 중국 본토에 완전히 편입된 상황에서 일부 측면에서는 이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여기에 금융 및 보험 부문을 중심으로 보다 우호적이고 국제적이며 덜 제한적인 환경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더해지고 있다.

이는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투자 규모와 자본 흐름에서 드러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의 생활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라는 현실로도 나타난다.

연간 1인당 평균 소득이 약 10만 달러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활비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160만 명의 이민 노동력 중 일부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재무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웅 총리는 노동자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빠른 기술 변화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따라잡는 데 대한 우려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노동시장의 전환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적절한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예산안에서는 세 가지 주요 행동 방향이 제시됐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경제적·고용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3만 싱가포르달러(약 2만 3,750 미달러) 한도의 40% 세금 감면, 고령층, 숙련 노동자, 이민, 그리고 점점 큰 어려움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 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셋째는 일부 인센티브(예: 차량 교체 지원)와 영향이 낮은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다. [AsiaNews, 2026/2/14]

【 게시 판 】

- ▶ 동남아시아의 문화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기고와 특히 동남아 선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체험담이나 현지 문화에 관한 투고를 환영합니다.
- ▶ 동남아선교정보센터에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하실 분은 아래 구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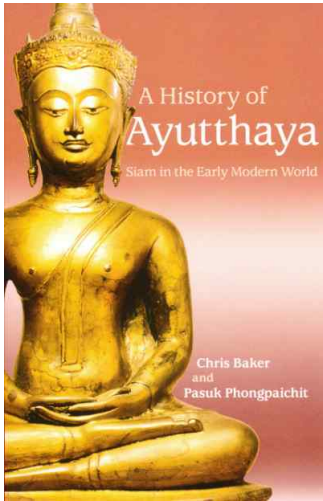
▷ 국민은행 820-21-0519-016(조흥국)

☎ 010-3742-6302

- ▶ 동남아선교뉴스레터 구독 신청 ▷ 조흥국 ☎ 010-3742-6302

E-mail: seathai@hanmail.net

동남아시아 및 선교에 관한 도서 소개



Chris Baker and Pasuk Phongpaichit. *A History of Ayutthaya: Siam in the Early Moder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325 p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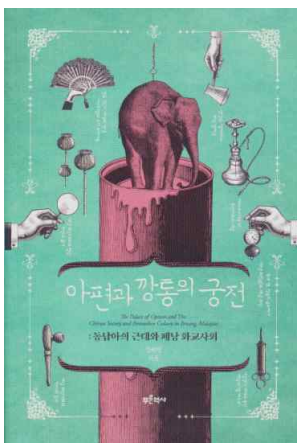
Preface: Ayutthaya in History

1. Before Ayutthaya
 2. Ayutthaya Rising
 3. An Age of Warfare
 4. Peace and Commerce
 5. An Urban and Commercial Society
 6. Ayutthaya Falling
 7. To Bangkok
- Appendix: List of Kings

Chris Baker는 프리랜서 저술가이며, Pasuk Phongpaichit은 방콕의 쥘라롱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이들은 태국의 역사, 문학, 정치경제 등에 관해 8권의 책과 30편 이상의 논문을 공동 집필했다.

통차이 위니짜꾼(Thongchai Winitchakul)의 서평.

이 책은 방대한 육상 자원을 바탕으로 한 범아시아적 교역 중심지이자, 복잡하지만 취약한 정치 인프라를 지닌 제국 권력이었으며, 시암을 하나의 독특한 국가로 만든 풍부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지닌 개방 사회였던 역동적 아유타야 4세기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로 가득 차 있다. 철저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 그리고 탁월한 표현으로 쓰인 이 책은 앞으로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이를 능가할 저작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강희정. 『아편과 강동의 궁전: 동남아의 근대와 페낭 화교사회』. 푸른역사, 2020. 12 (495쪽)

- 1장 영국 식민지 페낭의 탄생
- 2장 아시아인의 도시 조지타운
- 3장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
- 4장 아편과 콜리
- 5장 흑과 백, 쌍둥이 골드러시
- 6장 '페낭 화인권'과 페낭 사회
- 7장 비밀결사 시대의 종언
- 8장 페낭의 '벨 에포크'
- 9장 페낭 화인권과 '악마의 밀크'

10장 '테스토스테론'의 화인사회와 여성

11장 상상된 '말라야'와 화인의 정체성

2025년 결산 보고

(2025.1.1 – 2025.12.31)

- ▶ 2025년 한 해 동안 동남아선교뉴스레터의 발행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써 후원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다음은 2025년 한 해 동안 후원금 및 회비를 내주신 분들과 교회 및 선교단체입니다 (존칭 생략/개인후원자 가나다 순).

- | | | |
|--------------|-----------------|----------------|
| ■ 사송교회 240만원 | ■ 한아봉사회 120만원 | ■ 고양동산교회 120만원 |
| ■ 큰터교회 20만원 | ■ 해운대 미래교회 20만원 | ■ 권태호 5만원 |
| ■ 김상옥 36만원 | ■ 김성국 36만원 | ■ 김현태 50만원 |
| ■ 오광석 24만원 | ■ 이혁희 12만원 | ■ 조고은 14만원 |

2025년 결산표

수 입		지 출	
전년이월	2,363,056	선교후원비	3,870,000
		도서인쇄비	1,291,000
		컴퓨터 구입	1,087,800
		접대비	1,069,760
후원금	6,970,000	우편료	610,060
수입이자	2,468	라오스리조트 항공료	620,200
소계	6,972,468	홈페이지관리비	167,200
		소계	8,716,020
		차년이월	619,504
합 계	9,335,524	합 계	9,335,524